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인포그래픽스

Gyeongsangnamdo Women & Family Foundation
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

Vol. 33
2024. 07

경남 18개 시·군의 성별 주요 건강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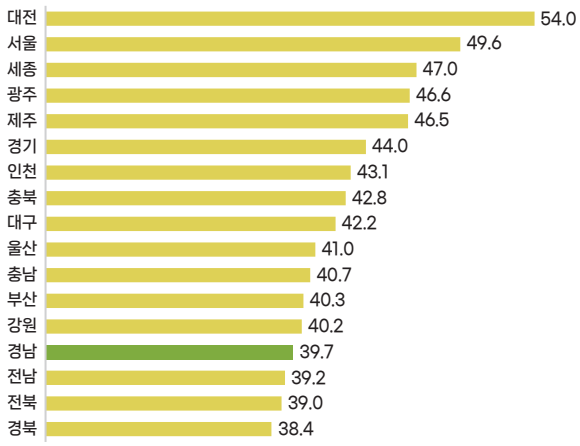
이 정 희 연구위원

1. 주관적 건강인지율

※ 지표 정의: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"매우 좋음" 또는 "좋음"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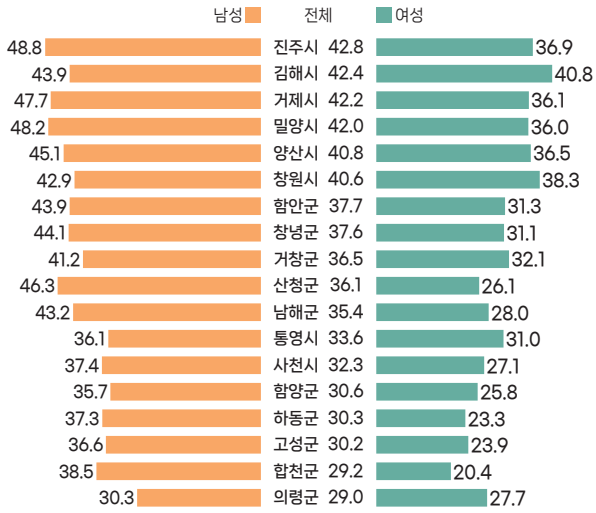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 중 스스로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9.7%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에 해당함
- 경상남도 시·군 중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진주시(42.8%), 가장 낮은 곳은 의령군(29.0%)임
- 남성은 진주시(48.8%), 여성은 김해시(40.8%)가 가장 높고,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산청군(20.2%p)임

17개 광역자치단체



경상남도 18개 시·군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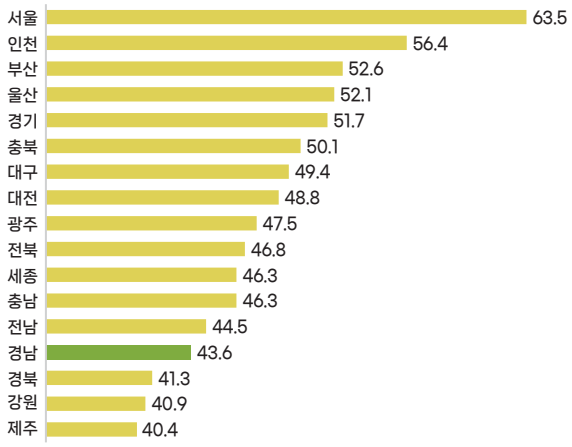
출처: 통계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 원자료 분석(2023), 성인지통계시스템.

2. 걷기 실천율

※ 지표 정의: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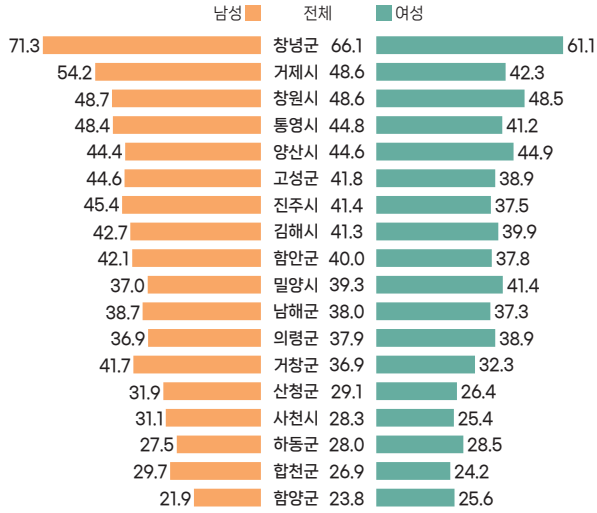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 중 주 5일 이상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비율은 43.6%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에 해당함
- 경상남도 시·군 중 걷기 실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녕군(66.1%), 가장 낮은 곳은 함양군(23.8%)인데 특히 함양군은 전국 258개 시·군·구 중 걷기 실천율이 가장 낮은 지역임
- 남성, 여성 모두 창녕군이 가장 높고,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곳은 거제시(11.9%p)임

17개 광역자치단체



경상남도 18개 시·군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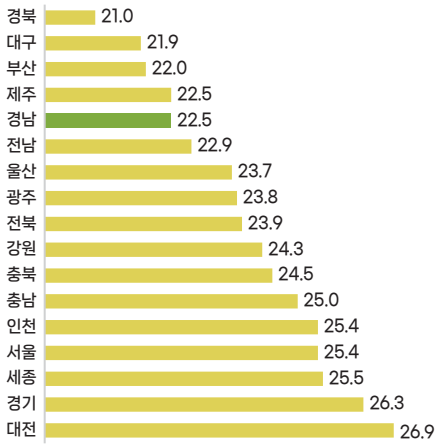
출처: 통계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 원자료 분석(2023), 성인지통계시스템.

3. 스트레스 인지율

※ 지표 정의: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"대단히 많이" 또는 "많이" 느끼는 사람의 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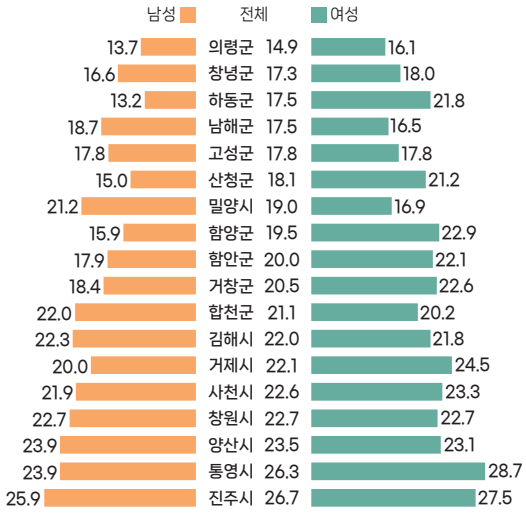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2.5%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와 함께 네 번째로 낮은 지역임
- 경상남도 시군 중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의령군(14.9%), 가장 높은 곳은 진주시(26.7%)임
- 남성은 하동군(13.2%), 여성은 의령군(16.1%)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낮고, 남성은 진주시(25.9%), 여성은 통영시(28.7%)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음

17개 광역자치단체



경상남도 18개 시·군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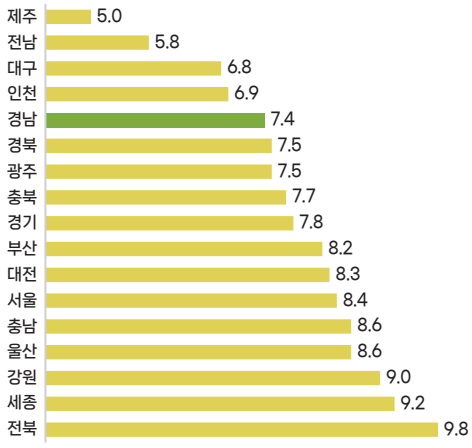
출처: 통계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 원자료 분석(2023), 성인지통계시스템.

4. 우울감 경험율

※ 지표 정의: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(슬픔이나 절망감 등)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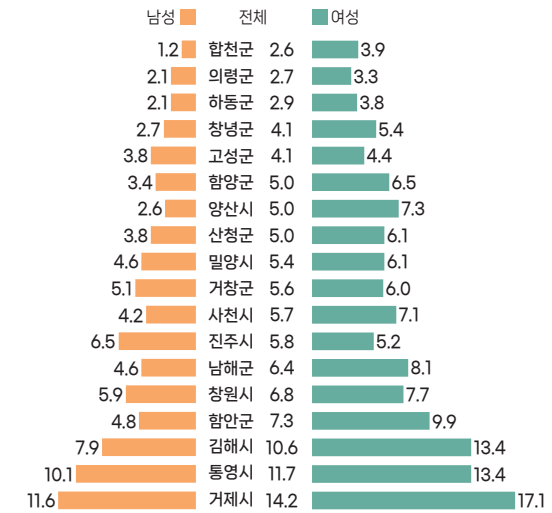
- 경남도민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7.4%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지역임
- 경상남도 시·군 중 우울감 경험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합천군(2.6%), 가장 높은 곳은 거제시(14.2%)인데 특히 거제시는 전국 258개 시·군·구 중 우울감 경험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
- 남성은 합천군(1.2%), 여성은 의령군(3.3%)의 우울감 경험율이 가장 낮고, 남성과 여성 모두 거제시의 우울감 경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

17개 광역자치단체



경상남도 18개 시·군

(단위: %)



출처: 통계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 원자료 분석(2023), 성인지통계시스템.

본 인포그래픽스의 저작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. www.gnwff.or.kr